

4·3수형인 진술 못 믿는 ‘피고 대한민국’

15일 ‘100억원대 수형인 손해소송’ 변론기일 정부 “판결문 명시 사항 외 피해사실 못 믿어” 수형인 “불법행위 인정돼... 뭐가 입증 안됐다”

제주4·3 수형생존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 자리한 ‘대한민국’이 수형인의 진술만으로 된 피해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15일 양근방(89) 할아버지 등 4·3수형인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변론기일이 종결돼

선고일이 정해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변론종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피고(대한민국) 측 대리인은 “(4·3수형인) 공소기각 판결문 외에는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이에 판결문에 명시된 사항 외에 진술 등으로 이뤄진 피해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수형인) 측 입재정 변호사는 “국가의 불법구금과 고문, 전

과자 낙인 등은 사실상 재심 재판에서 인정된 사항이다. 뭐가 입증이 안됐다”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류호중 부장판사는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면서 수형인 개개인에 대한 구금일수 등 피해사실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피고 측에게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제출하라. 또한 재판 때 항상 1명만 출석하고 있는데, 인력충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련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일일수입(逸失收入) 기준인 노임 책정의 적정성 ▷수형인 사망 시 상속권 문제 등을 다

음 기일인 6월 3일 오후 2시30분까지 제출하라고 양 측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쟁점이 됐던 ‘청구 소멸 시효’는 양 측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3억원으로, 1인당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수형인들이 승소한 53억원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인정, 이 행위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대형 화물차 과속 꾸준... 최다 적발 ‘번영로’

시속 100km 이상 과속질주도

행한 대형 차량은 총 27건에 달한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도 35대로 나타나면서 자치경찰단은 이들 차량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도내에서 과속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번영로(40.2%)로 가장 많았고,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등이다. 이들 도로는 일반 승용차의 과속 운행 또한 잦은 곳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규정 속도 준수가 요구된다.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 및 제한규정 속도 운행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지난해엔 대형화물자동차 160건·대형승합차 72건, 2019년엔 대형화물자동차 119건, 대형승합차 95건이 적발됐다.

특히 시속 90km 이상으로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 2020년 36건, 2021년 현재까지 7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시속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

공무원發 n차감염 재확산 위기 고조

14일 확진 서귀포해경 직원 동료 2명 확진 15일에도 3명 추가 확진... 방역 ‘불안불안’

제주대학교병원 입원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직원의 동료 2명이 확진되면서 n차감염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3명(666-668번)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에도 3명(669-671번)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 14일 제주대학교 병원 입원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화순파출소 소속 경찰(667번) 관련, 해당 파출소 동료 직원 2명(669-670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67번 확진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15일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667번 확진 직후 해당 파출소 직원 28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2명이 양성, 1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667번과 같은 시간대에 근무해 접촉이 이뤄진 직원 18명에 대해

서는 자가 격리 조치가 진행됐으며, 15일 신규 확진된 669-671번의 접촉자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아울러 668번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인천으로 입국했으며 지난 13일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671번은 인천 지역을 방문 후 지난 14일 입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13일 오후 12시부터 14일 정오까지 응급실 방문자들은 코로나 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했다.

제주대병원 방문이력으로도 현재까지 총 120명이 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39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81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지역 백신 관련,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1차 접종 완료자는 1만8261명이며, 2차 접종 완료자는 2005명으로 집계됐다.

강다해기자 dhkang@ihalla.com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제주 수산인 단체 16일 집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과 수산인 단체들은 15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삶의 터전인 청정 제주바다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수산업협동조합장협의회, 제주도어선주협회, 수산업경영인제주도연협회,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 지구촌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시 직접피해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수산업계는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청정바다서 투명카약 즐기는 관광객들 15일 제주시 애월 한담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청정 제주바다 속을 볼 수 있는 투명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제주 도심권 제한속도 ‘시속 50km’

정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보행자 통행 많은 도심 차량 제한속도 조정

17일부터 제주지역 도심권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

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시속 60km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스쿨존 등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에는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으로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

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했으며, 서울 4대문은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아울러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시 통행시간은 평균 2분 증가에 그쳤고, 택시요금도 106원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우도 쓰레기매립장서 압착기에 끼어 50대 중상

지난 14일 오후 2시53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소재 쓰레기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던 A(55)씨가 스티로폼 압착기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

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우측 팔 개방성 골절을 입으면서, 소방헬기 한라매를 통해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목이 특기할인!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리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 2층)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2022년 2월달 식재용 탱자묘 1년생

사전분양계약

한림종묘

010-3690-2453